"우리 나라 암 퇴치 작전 사령관으로서 소임 다할 터"

국립암센터 박 재 갑 원장

국민 사망원인 제 1위.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암(癌)을 경부차원에서 집중관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립암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온 국립암센터의 개원이 있기까지, 박재갑 초대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

지금까지 암 퇴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 우물을 파온 박원장이었기에, 깊은 소신과 전문성, 강력한 추진력과 적극성으로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께 금연사업과 암조기발견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해 올해 경부 5대암검진사업과 범국민 금연사업의 확대에도 힘을 실었던 박재갑 원장을 만나 암센터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립암센터 설립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89년 암이 국민 사망원인의 1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국립암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온지 2년이 지났을 때였고 대한암학회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40여년 전에 암연구소를 설립했고, 일본 역시 2~30여년 전에 국립 암센터를 설립해 국민 암관리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 건강의 중요문제로 떠오른 암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당시에 건의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국립암센터 병원건물이 착공되었고, 1997년엔 암센터 설립준비단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법률 제 6149호로 국립암센터법이, 같은 해 3월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우리 나라 암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죠.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나라 국민 암 발생률을 낮추고, 발생한 암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환자라면 사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시작된 국립암센터가 중점적으로 하게 될 일은 ?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국가 암발생 통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암 발생현황은 국제 공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별·나이별 암 발생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있어야 암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본적인 암등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가 국립암센터로 옮겨왔습니다.

두번째로, 국립암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어도 할 수 있었고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암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금연사업, 즉 담배추방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암 발생 전체의 20%, 암 사망 전체의 30%가 흡연이 그 원인입니다. 담배를 빨리 추방해서 흡연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추고 흡연인구를 대폭 감소시키지 않으면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엄청난 재정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 조기발견과 예방사업입니다. 국민 호발 6대암 중 2가지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암의 80~90%가 예방 가능하고, 우리 국민 간암의 주원인인 B형간염은 백신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면 간암의 70~80%가 예방 가능합니다.

나머지 4가지 암, 즉 위암·유방암·자궁암·대장암은 조기검진도 쉽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내에 암예방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3 ▶

예방사업과 조기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암 검진은 국가 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고 앞으로 점차 5대 암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 국민 암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앞으로 국립 암센터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갈텐데, 어떤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암관리과가 신설되어, 암사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에 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암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리대상인 5대 암 검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즉 어떤 검진을 몇살 때부터 얼마의 주기로 받는 것이 우리 국민에 좋은지를 정하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 국민의 실정은 완전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적으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은 자궁암에 대해 논의 중이고 다음 단계는 위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검사실시 후 암을 얼마나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조기 암이 느는지 등 통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 세미나 등 여러 학술대회를 통해 '금연'과 관련된 원장님의 강연도 들었고, 또 최근에 암센터 건물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게 된 동기와 이와 관련한 소신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

개인적으로 담배가 나쁘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국가적 차원의 금연정책에 관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센터와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암관리에 아무리 많은 국가예산을 쓴들 암의 중요 원인인 흡연율을 낮추지 않고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립 암센터가 하는 암퇴치 정복사업은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가 국립암센터를 설립하면서 암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볼 때 원장은 어찌 보면 암퇴치를 위한 작전사령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잡아죽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담배 추방인데, 금연사업을 국가 정책차원에서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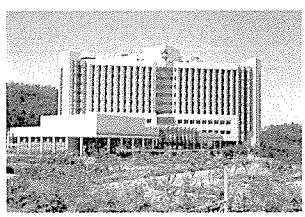
그래서 작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담배에 대한 폐해와 암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강력히 보고드렸던 겁니다.

▶ 지난해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의드렸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에 금연사업과 암 조기발견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었죠. 이것이 올해 전국민 암검진 중 자궁암검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갈 때 암검진 안했으면 여권에다 도장 안찍어주는 것이 어떠냐는 획기적인 발상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좀 더 강력한 금연대책, 심지어는 조세제도까지 다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현재 지방세나 지방교육세가 담배 세금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발

국립암센터(http://www.ncc.re.kr)



- **설립목적** :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암진료와 그와 관련된 암연구 수행
- **2001년 3월 중 정식 개원 예정**(2000년 12월부터 일부 진료 개시)
- **규모** : 500병상의 종합병원(암진료를 위한 최신 시설 및 진료체계 구축)
- **진료체계** : 국내 호발 6대암 및 기타 특수암 등의 환자중심 진료센터(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암·특수암·화학요법·진료지원·암예방검진) 운영
- **암퇴치백만인클럽** : 매월 1,000원(5년간 또는 일시불 5만원) 후원회비 납부회원
- **국립암센터발전기금** : 10만원 이상 기부
- **외래 이용 및 제반 문의** : 031-920-1140~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809), 15888-110(지역번호없음)

◎ 서울의대 · 대학원 졸업(~1979)
◎ 서울의대 교수(1981~현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양생물학 협동과정 주임교수(1997~2000)
◎ 미국국립암연구소 연구원(1985~1987)
◎ 서울의대 암연구소 · 연구센터 소장(1995~2000), 암연구소 세포생물학 연구부장(1987~ 현재)
◎ 대한면역학회 · 소화기학회총무, 대한암협회 총무이사, 대한암학회 상임이사
◎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1991~현재)
◎ 한국암정복추진단 위원(1996~2000)
◎ 국립암센터 설립준비단 공동단장(1997~1998), 개원준비본부장(1999~2000)
◎ 국립암센터원장(2000~현재)

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걷으려면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지요.

요즘 담배값 인상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세금을 올리기 위해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담배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운영계획을 혁신해야 한다, 즉 2~30년 내에 담배를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좋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맞다. 세금이 한푼도 안 들어와도 좋으니 국민이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고 말씀하셨던거지요.

사실 외국에 비해 우리는 담배값이 너무 싸죠. 예를 들어 담배값을 100원만 올려도 한해에 5천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국민건강개혁운동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이 많이 피우는 담배값을 올려 세금을 많이 걷으려 한다는 식의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금연 사업에 대해 강력한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계신데, 개인적인 흡연경험은 ?

고등학교 때 만화가게에서 한 두 번 호기심에 피워본 경험 외에는 전혀 피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웠었다면 오히려 금연에 대해 말하기가 더 쉬웠을지 모르는데, 안 피워봤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 원장님은 우리 나라 국민건강증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 증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능력에 비해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들이 맡으셨어야 하는데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암센터가 암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0년 후일지는 몰라도 담배는 어차피 세계적 운동에 의해 퇴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 퇴출이 몇 년이라도 앞당겨진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 흡연율을 더 빨리 낮출 수 있기만 하다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은 사람이 정책입안자나 언론, 국민들에게 자꾸 말해줘야 합니다. 암퇴치 작전사령관으로서,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담배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라는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해야 하지요.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려면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건강관리협회 같은 보건단체에서도 자라는 세대(청소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흡연하는 학생에게는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겁니다.

▶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시간상 운동은 특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의 첩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주 1회 정도 한시간 동안 산을 뛰다시피 걸어서 땀을 흘리는 정도입니다.

▶ 오랫동안 가져온 인생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만한 인생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를 잘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가지를 잘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적성에 맞게,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